

방송현장

AI는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지역MBC 8개사 공동제작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 제작 과정의 액션리서치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교수

목차

- 1 문제의식 : 지역방송의 위기, 그리고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 2 연구방법 : 참여관찰 및 실행연구
- 3 AI는 지역방송의 위기, 인구소멸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4 분석 결과
- 5 결론 : 지역문제 해결자로서의 지역방송

요약

본고는 지역MBC 8개사가 공동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의 공동연출 및 진행자로서 참여한 연구자가 제작
현장에서 수행한 참여관찰 연구(participant observation)와 액션리서치(action
research)를 기반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1부 ‘지역소멸 위기, AI에게 묻다’부터 12부 ‘AI, 지역생존 해법을 알려줘’까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농어촌의 쇠퇴, 학생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문화의 약화, 국가 정책의 방향성 등 한국 지역 위기의 핵심 문제를 다루었으며,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정책 도구이자 공동체 회복의 파트너로 설정해 지역문제를
재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1] 지역생존 AI 프로젝트〈우리 고향, 부탁해!〉타이틀



출처 : 제주MBC

1. 문제의식 : 지역방송의 위기, 그리고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지속되는 시청률 하락과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오늘날 지역방송이 마주한 가장 구조적이고 시급한 위기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현장의 종사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매일 체감하는 실제적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 “지역방송은 콘텐츠 경쟁에서 이미 뒤쳐졌다.”, “지역방송의 존립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비판적 진단이 언론계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왔다.

한편, 전 사회적으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생성형 AI의 도입이 모든 산업과 직업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40~50대 중장년층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과 고용 관련 여론조사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AI 시대 노동 대체에 대한 공포는 20~30대보다 40~50대 이상에서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변화가 개인의 경력 자본과 생계에 미칠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우려하는 심리적 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역방송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MBC 8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라디오 프로젝트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 우리 고향, 부탁해!」는 지역방송이 처한 위기를 단순히 생존 불가능성의 징후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실험으로 제시했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단순히 콘텐츠 제작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소비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실질적 파트너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방송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AI와 지역방송을 결합하여 지역소멸·의료공백·교육격차·농어촌 위기·문화자원 붕괴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지역 주민·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시대에서, 지역방송이 단지 정보 전달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자’이자 ‘공공성의 생산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이며, 본고는 그 현장 보고서다.

본고는 필자가 지난 1년 동안 지역MBC 8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12부작,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 우리 고향, 부탁해!’의 공동 연출자이자 진행자로 참여하며 기록한 실행 연구(action research)이자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보고서다. 각 지역 방송의 PD·기자, 정책 전문가, 이민·문화·농어촌·관광·교육 현장의 실천가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등장한 AI 아바타 ‘AI 유리’와 대화하고 토론하며, 저자는 한 가지 질문만을 싓았다. ‘AI는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담론이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 사라지는 학교, 문화와 산업의 단층,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자리 잡으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불안을 품은 지역의 화두였다. 방송 현장의 참여는 그 얼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경험이었다.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 기술에 대한 구조적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AI는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이 아니라, 1950년 앤런 튜링의 질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로부터 시작된 70년의 발전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즉, 현재의 생성형 AI나 대화형 AI는 단절적 혁신이 아니라 인류 기술 축적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AI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기술 회피가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AI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기술 변화 속도와 노동

시장 충격에 대한 구조적 우려와 맞닿아 있다. 기존 AI가 단순히 말을 생성하던 도구였다면, 최근 AI는 추론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술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한다. 즉, AI는 더 이상 단순 자동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구조 일부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 불안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AI 기술 발전이 지역사회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은 ‘기술을 해설하는 공적 플랫폼’이자 ‘기술 격차를 완화하는 정보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지역MBC 8개사의 공동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 이해와 시민 불안 완화를 연결하는 공공적 미디어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

1)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프로그램의 공동연출자이자 MC로서 모든 제작회의, 원고 개발 과정, 현장 녹음, 전문가 인터뷰, 시민 질문 수집, 대본 검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는 ‘관찰자’이자 ‘행위자’로서의 위치를 동시에 부여하며, 방송 제작 과정 전체를 연속적인 연구 자료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2) 실행연구(Ac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지역문제 해결 자체를 목표로 하므로 연구자는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변화를 촉진하는 참여자’였다. 전문가 선정, 질문 구성, 시민 참여 방식 설계 등에서 연구자 스스로가 실천적 개입을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연구는 문제를 탐구하면서 동시에 해법을 실천하는 연구 과정이 되었다.

3) 데이터 출처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획득한 1부~12부 공식 방송 대본을 참고했고, 매 제작 회의 시 녹음 현장을 클로바 노트로 녹음하고 그 녹취를 AI를 활용해 텍스트화하고 요약·분

석했다. 그 외에 전문가 인터뷰(의료, 농업, 스마트시티, 교육, 문화, 균형발전 등 40여 명)와 시민 질문 총 17건 등이 연구의 풍부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현장 메모 및 제작 로그 기록, 지역MBC 8개사 유튜브 공식 업로드 영상을 리뷰하여 본고를 정리했다.

3. AI는 지역방송의 위기, 인구소멸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1) 제작 배경 : 오랜 기간 구축되어 온 8개사 공동제작 시스템

MBC강원영동·MBC경남·원주MBC·충북MBC·대전MBC·광주MBC·목포MBC·제주MBC는 이미 지난해에도 12부작 ‘지역생존프로젝트,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를 제작하여 한국방송협회 방송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미 2014년 KCA 제작 지원을 받아 각 지역의 의인을 발굴하여 재조명한 ‘의인열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였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살아서 신선이 되는 법, 살신성인’이라는 16부작 인문학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 편성하였고, ‘지역MBC 명품 인문학 강의, 인문학 특강’이라는 책으로 폐내 콘텐츠 IP를 활용한 OSMU를 실천했다. 물론 전국의 지역MBC는 민방소재 9개사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이어왔으나, MBC강원영동·MBC경남·원주MBC·충북MBC·대전MBC·광주MBC·목포MBC·제주MBC의 공동제작은 특이한 점이 있다. 담당PD, 즉 제작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역MBC 8개사 공동제작은 각 지역MBC 아나운서들이 제작자로 참여했다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의 공동제작은 여러 PD가 로테이션으로 정규물 혹은 특집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지역MBC 8개사 공동제작은 지역MBC 아나운서들이 오랜 유대를 바탕으로 라포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한정적인 제작비로 TV, 유튜브, 라디오까지 열두 편을 제작해야 하는 열악한 제작 상황 속에서 각 사의 아나운서는 기획·연출·진행, 심지어 분장사가 되어 전문가 패널 출연자의 분장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신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연대기반 공동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각 사의 제작자들은 지역별 현안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총 12부의 방송을 완전한 공동 프로젝트로 구성했다.

그동안의 지역방송 공동제작은 방송평가의 ‘자체제작’ 기준인 자체제작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는 ‘각자 제작’하여 ‘공동 편성’하는 방식이 많았다. 편성책임자 회의를 통해 공동의 주제를 선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각자 제작하여 편성만 공동으로 함으로써 자체 제작 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실적을 위한 공동제작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공동제작은 지난 10여 년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10회 이상의 사전 긴밀한 협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주제를 모색하였고, 강릉, 원주, 대전, 청주, 광주, 목포, 제주 등 각 지역의 다양한 이슈 가운데, 시급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살릴만한 주제로서 ‘인구 소멸 위기’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솔루션의 방식으로 AI를 채택한 것이다. 지역이, 지역방송이 이 절실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함께 연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했기에 이를 ‘연대 기반 공동제작’으로 명명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2) 기획 단계 : 지역방송을 정보 전달자가 아닌 지역문제 해결자로 재배치하기

8개 지역MBC PD들은 프로그램 초기 회의에서 ‘지역방송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다. 이 질문은 지역방송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작업이었고, 그 결과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지역방송의 기능이 뉴스 전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이 바로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기획 철학이다. AI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AI는 콘텐츠를 쉽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도 하지만, 지역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구조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다. 그에 대한 구조적인 틀은 첫째, AI 아바타 진행자도입이었다. 둘째, 빅데이터 기반 지역 현안 분석을 통해 문제의 구조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셋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제언을 들어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많은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지만, 다른 점은 작가와 PD가 그간의 경험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명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업체와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방송 출연 인물을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지역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성, 초지역성이다. 지역밀착성을 살리기 위해 공동제작

에 참여한 8개 지역MBC의 제작자들은 각 지역의 주민·청년·노년층의 목소리 수집하였고, 이는 공론장 생성의 과정이었다.

[그림2] 지역MBC 8개사 공동제작 <우리 고향, 부탁해!> 제작진



멀티모달 AI의 등장으로 AI가 이제는 보고·듣고·말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이는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역할까지 기술이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에이전트 AI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상황은 이번 프로젝트가 AI를 지역 과제 해결의 공동 실행자로 설정한 배경이 되었다. 제작진이 AI를 단순 진행 보조가 아닌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AI가 정책적·사회적 판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문제 연구·데이터 분석·정책 대안 발굴이라는 구조적 접근 속에 AI를 배치함으로써 지역방송 기획 방식의 전환을 실험하는 기획이었다.

3) 실행 단계 : 지역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한 순간

각 지역사가 가진 취재력과 전문가 인프라가 결합되었고, AI 분석팀과의 연동을 통해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8부 ‘AI,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는 MBC충북에서 녹화했다. 이민정책연구소 김화연 박사는 AI 유리와 대화를 하며 지역 소멸을 해법을 찾는 역할을 했다. 방송 녹화는 사전에 작성된 각본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묻고 AI가 답하고, 반대로 AI가 묻고 사람이 질문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즉, 정해진 결론을 전시하는 방송이 아니라 질문과 응답을 통해 해답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지역 인구구조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다문화 공동체의 유입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임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AI가 검색 포털 수준의 정보 제공 창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반을 재구성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사람이 떠난 마을, 불 꺼진 집,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AI는 사라지는 것을 불잡고, 잊혀가는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원주MBC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 9부 ‘AI, 지역의 문화를 키워줘’는 AI 아바타 유리의 오프닝으로 시작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본부장은 AI가 지역 문화의 기록과 보존, 관광 활성화, 청년 창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본부장은 AI 시대의 문화정책의 핵심에 대해 ‘결국 중심은 사람과 공동체’라고 말한다. AI가 지역의 문화·관광 생태계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시민 질문 17건을 직접 수렴해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은 AI 리터러시 교육의 실천적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번 공동제작은 지역민이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정책 담당자·AI가 함께 답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기반 AI 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공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4. 분석 결과

1) 지역방송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구현

[표 1] 지역MBC 8개사 공동기획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의 주제 및 내용

주제	내용
1부 지역소멸 위기, AI에게 묻다	인구추계(빅데이터 분석)
2부 AI, 사라지는 도시를 지켜줘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일까?
3부 AI, 새로운 일자리를 알려줘	청년 일자리
4부 AI, 우리 삶을 돌봐줘	의료 돌봄 원격진료, AI 스마트 건강서비스, AI기반 지역 의료 네트워크
5부 AI, 위기의 농어촌을 살려줘	충남 금산 IC 스마트팜 모델, 포항 스마트 양식장
6부 AI,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	스마트 시티/인공지능 혁신센터 초중고 폐교, 대학 통합
7부 AI, 사라지는 학교들을 지켜줘	- 충남대 인공지능혁신위원회 출범, 동서대 생성형 AI 접목 창업중심 플랫폼 교육, 인공지능 특성화고
8부 AI,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	이민정책/다국어서비스
9부 AI, 지역의 문화를 키워줘	지역문화 지역관광의 가치
10부 AI, 우리가 준비할 것을 알려줘	인공지능의 교육 필요성/윤리적인 대안
11부 AI, 국가의 비전을 보여줘	지역별 인공지능 정책
12부 AI, 지역생존 해법을 알려줘	전체 소감

지역소멸 위기, AI에게 묻다. 농어촌 고령화 문제는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은 AI 원격진료 모델 분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폐교 문제는 AI 기반 교육 솔루션을 탐색하여 해법을 찾고자 했다. 균형발전 정책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검토, 문화자원 감소는 AI 문화관광 플랫폼 제안,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방송의 보도를 통해 여론 형성을 하여 공론장 기능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문제 제기 후 전

문가의 대안 제시로 끝내는 기존 시사/정보 방송 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정의 → 해법 제시 → 정책 연결 → 지역주민 공론화’의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다.

AI는 여전히 딥페이크와 AI 정보 조작 기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AI 시대에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시민의 능력, 즉 AI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방송은 단순 보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검증된 정보·해석·기술 이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AI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로 질문력·비판적 사고·다중 출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정답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민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AI 시대에 지역방송은 단순 보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검증된 정보·해석·기술 이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림 3] MBC 경남 백울희 아나운서를 모델로 제작한 AI 유리



출처 : 이스트소프트 페르스에이아이

2) AI 아바타 ‘유리’의 실험성

AI 아바타는 지역민이 “AI도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존재”로 느끼도록 하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다. AI 아바타 ‘유리’의 도입은 단순한 연출적 장치 이상이었다. 생성형 AI는 사람의 말투·감정·표현 방식까지 정교하게 학습하며 창작 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AI 아바타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가상의 진행자가 아니

라, 지역민과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질문을 확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MBC 백율희 아나운서를 모델로 하여 이스트소프트사와 협력해 제작한 ‘유리’는 AI 기술의 창작·표현 능력과 지역문제 논의의 공공성이 결합된 상징적 결과물이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기술을 인간적 서사 속으로 끌어오는 방식”을 실험했다.

3) 지역민·전문가·정책 담당자·AI가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 생성

특히 12부에서 시민 17명의 생생한 질문과 AI의 맞춤형 제안이 이어진 것은 지역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방송이 이를 해결 과정의 중심에 놓는 새로운 실험이었다. 각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부 ‘지역소멸 위기, AI에게 묻다’는 ‘AI 시대 지역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총론적 성격의 회차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첫째, 지역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며, 둘째, AI는 노동력 부족·의료 격차·교육 공백이 심화되는 지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농 어촌의 노동력 부족, 고령층 돌봄 공백, 학교 폐교 현상은 AI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스마트팜, 원격의료, 교육 AI 튜터 등은 실질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소개되었다.

2부 ‘사라지는 도시를 지켜줘’에서는 스마트시티 관점에서 지역 도시 구조를 재해석했다. 청년 유출, 노후 기반시설, 지역 교통체계 문제는 교통 데이터 최적화, 환경 센서 분석 등 AI 기반도시 운영 시스템을 통해 혁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은 도시는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부 ‘새로운 일자리를 알려줘’에서는 지역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청년이 머물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패널들은 AI 시대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등장할 직업군을 제시했으며, AI가 대체하는 직업보다 AI를 활용하여 확장되는 직업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제조업·농업·보건 분야에서 AI 보조 인력, 데이터 기반 전문가, 기술 매니저 직군의 확장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4부 ‘AI, 우리 삶을 돌봐줘’에서는 의료·돌봄 분야를 살펴봤다. 지역의 의료 공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고, 원격진료·AI 진단 보조·예측 의료·웨어러블 기반 건강 관리 등은 지방 의료체계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핵심 기술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AI는 말벗·생활 도우미·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한 존재로 제안되었다.

5부 ‘AI, 위기의 농어촌을 살려줘’에서는 농업·어업 분야를 조명했다. 스마트팜, 작황 예측, 자동화 로봇, 드론 방제, 기후 데이터 분석 등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문제 해결에 매우 구체적 해법을 제공했다. 패널들은 AI 없는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6부 ‘AI,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에는 과학기술연구소 등이 밀집된 대전에서 녹화가 이루어졌는데,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AI 기술이 가져오는 교육, 산업, 사회문화적 구조 변화를 재조망하며, 기술은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이 강조되었다.

7부 ‘사라지는 학교를 지켜줘’는 교육 문제를 다뤘다. 출생아 급감으로 인한 학교 폐교 문제는 지역소멸의 전형적 신호다. AI 기반 원격교육, 개별맞춤형 학습, AI 학습관리 시스템은 지역 교육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패널들은 학교는 지식 전달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AI는 교육을 돋지만, 학교 공동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8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에서는 이주민·다문화 공동체를 이슈로 다뤘다. 외국인은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인구 대비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이다. 이민정책연구소 김화연 연구원은 AI는 언어 장벽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하며, AI 기반 번역·행정안내·교육 지원이 이주민 정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문화 공동체가 아니며, AI는 새로운 주민과 기존 주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9부 ‘지역의 문화를 키워줘’에서는 문화·관광 분야가 주제였다. AI가 가장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은 AI는 문화유산 기록·관광경로 분석·지역 콘텐츠 생산을 돋는 기술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지역문화를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지속가능 자신’으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AR·VR 기반 관광, AI 콘텐츠 생성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성이 컸다.

10부 ‘우리가 준비할 것을 알려줘’는 AI 시대에 필요한 준비는 기술적 역량보다 인식의 변화임이 강조되었다. 성우 이철용 씨가 출연하여 AI와 인간의 역할 재조정 문제에 대해 AI와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를 ‘AI는 악기이고, 성우는 아티스트다.’로 함축되었다. 성우는 아티스트로서 창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AI는 도구로써 기능한다는 것이다. 한 사례로 AI 음성 생성 기능으로 인해 성우의 일이 줄어드는 문제를 다뤘지만, 이를 지역의 노동력 감소와 결부 지어보면, 지역의 노동 구조는 단순 대체가 아니라 역할 재편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11부 ‘AI, 국가의 비전을 보여줘’는 AI 시대 지역 문제를 국가 비전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중요한 회차였다. 한국기계연구원 임현의 박사는 AI는 노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기술이어야 하며, 데이터 인프라가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지역 생존은 주민의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청주시정연구원 원광희 원장은 지역소멸은 국가의 존립 기반 문제이며, AI는 지역 맞춤형 성장 엔진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역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은 파트너십 구조로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AI는 데이터 기반 정책의 핵심 도구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11부는 정부 정책과 지역 전략을 연결시키는 관점을 제공했고, AI를 국가의 장기 전략과 지역 균형발전의 매개로 제시했다.

4) 지역방송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모델 제시

지역방송 위기 속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방송사들이 실천 가능한 6가지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 1. 지역 간 공동제작 협업 모델 구축

모델 2. AI 기반 데이터 분석팀 신설

모델 3. 지역 문제 해결형 콘텐츠 확대

모델 4. AI 아바타 · AI 기자 실험

모델 5.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모델 6. 시민 참여 기반 공론장 프로그램 기획

모델 1. 지역 간 공동제작 협업 모델 구축은 중복 제작을 줄이고, 지역 전문성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방송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모델 2. AI 기반 데이터 분석팀 신설은 지역 의제를 ‘데이터 기반 보도’로 업그레이드한 사례이다. 모델 3. 지역 문제 해결형 콘텐츠 확대는 보도를 넘어 해법 제안까지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델 4. AI 아바타·AI 기자 실험은 청년층 대상 커뮤니케이션 방식 혁신으로서 실험적이었다. 모델 5.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은 지역방송사가 지역 지식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 적용할만 하다. 모델 6. 시민 참여 기반 공론장 프로그램 기획은 지역민의 실질적 참여를 이끄는 구조화된 포맷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모델들은 지역방송이 더 저렴한 예산으로 더 빨리 제작이 아니라 ‘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콘텐츠를 만드는 혁신 전략으로 가능할 수 있다.

AI는 컴패니언 AI로 나아가고 있다. AI가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현상은 기술적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정신건강 악화라는 사회문제 속에서 정서적 AI가 중요한 돌봄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정서적 돌봄·관계 회복·지역 공동체 재구성의 미디어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의 정서적 기능을 공공적 관점에서 매개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민과 밀착된 지역방송이 가장 적합하며, 본 프로젝트가 바로 그 가능성을 실험한 사례였다.

5. 결론 : 지역문제 해결자로서의 지역방송

지역방송의 존립 근거를 묻는 시대, 지역MBC 8개사의 ‘프로젝트는 지역방송은 존재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다. 왜냐하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지역방송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지역방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이 공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방송의 위기 속에서 방송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례다.

지역 위기는 인구·경제·행정·문화·교육·의료 등 다종적 문제로 구성된다. AI는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AI 없는 지역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농업·교육·의료·교통·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필수 인프라이며, 지역의 기초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AI는 지역문제를 재해석하게 한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가적 난제로 여겨지던 지역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AI에서 발견하게 됐다. 예를 들면, 노동력 부족은 스마트팜·로봇·데이터 기반 자동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의료 공백은 AI 원격의료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지역 인구의 수도권 이주의 가장 큰 요인은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일 텐데, 이러한 문제는 AI 개별학습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에 자리한 지역방송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역미디어는 AI 시대 지역 생태계의 핵심 행위자다. 방송사는 지역민·전문가·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AI 시대 더 중요한 공공성을 갖게 된다.

마지막 12부에서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원주삼육초등학교 김민준 어린이는 AI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AI 덕분에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만들 수 있어요.” 미래세대에게 AI는 이미 일상의 동반자인 것이다. 지역MBC 공동제작 총괄을 맡은 제주MBC 지건보 아나운서는 지역방송이 AI 시대에 갖는 의미를 구체화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AI 시대 지역다움(locality)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은 기술을 인간적 이야기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단순 공동 편성이나 공동 포맷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공동 제작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은 지역지상파 생태계에서 중요한 혁신이다. 이는 경영난 속에서 ‘분절·축소·폐과’가 아니라 연대·확장·융합을 통해 생존 전략을 찾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물론 본 프로젝트는 몇 가지 현실적 한계도 드러냈다. AI 기술의 오인식 가능성, 데이터 격차 및 정확도 문제, 제작 인력의 AI 활용 교육 부족, 지역방송 내부의 디지털 전환 속도 차이, 예산·시간 제약으로 인한 실험 범위 제한 등은 여전히 지역방송 제작 여건이 갖고 있는 한계이다. 이 한계들은 오히려 향후 지역방송 혁신을 위한 과제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MBC 8개사 공동제작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의 기획부터 최종 후반작업까지 참여관찰을 할 실행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AI는 지역소멸의 직접적 해결책이 아니

다. 그러나 AI 없는 지역정책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지역생존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공동체·지자체·국가·지역미디어의 협력에 의해 가능하다. AI는 이 협력을 활성화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지역미디어는 AI 시대 지역 생존 전략의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의 문장일 것이다.

“AI는 지역소멸의 대안이 아니라, 지역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조건이다.”